



모스크바의 메아리

조동석 & 곽수희 선교사

2026. 05. 22.



러시아 당대 복음화



광활한 러시아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상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후원계좌: GP(조동석,곽수희) 하나은행, 990-090818-587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백혈병 치료를 받았던 친 손녀 은봄이가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후에 약간의 긴장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지금은 가족과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 이번 겨울에 무너진 신학교 지붕공사에 필요한 재정을 위한 기도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서 6월에 지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일대일 양육을 4지역의 현지교회에 교육시킨 후 일대일양육이 개 교회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탐보프주, 사마라주, 모스크바주, 툴라주, 크라스나다르 지방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대일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육자와 동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회에 기쁨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지 목사님들의 보고에 저희도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현재 모스크바 온누리교회 출판국에서 판매되어지는 일대일양육 교재는 저희가 큰 구매자중의 하나입니다. 더 많은 현지교회에 양육이 더 활성화 되고 정착되어져서 건강한 슬라브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OS전도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에 OS전도 및 영성지수를 활용한 MAUM센터 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감사한 응답들이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함입니다.

■ 4, 5월 동정



1. 새로운 깨달음

눈이 녹은 교정내의 만개한 민들레꽃들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하던 중, 학교 대문입구에서부터 건물 입구까지 심겨진 측백나무 앞의 좌우 측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민들레꽃이 만발하였으나, 반대편은 꽃이 아직 피지 않은 푸른 민들레만 가득하였습니다. 그곳은 높은 측백나무 그늘에 가려져서 겨울 내내 쌓인 눈들도 녹지 않고 쌓여있어서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 교정에는 봄, 여름, 겨울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은 자리엔 꽃이 없이 푸른 풀들만 있어서 제가 신기해하자, 조선교사 왈, 햇빛이 잘 드는 우측은 민들레들이 햇빛의 영양을 듬뿍 받아서 꽃들을 피워 보는 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만, 그늘에 가려진 민들레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꽃과 열매를 맺힐 수 있지만,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삶의 그늘에 가려져 열매없이 본인의 문제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성함의 원천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민들레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2. 결혼주례



회심 전에 전과자였던 '꾸르쿠노브 빅토르'형제가 5월3일에 교회 앞에서 꾸밈이 없는 소박한 결혼예식을 올렸습니다. 이 형제는 전 러시아에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지속적으로 한 한 전도자에 의해 회심을 한 후에 변화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며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감옥과 구치소 전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호활동을 통해서 러시아 전 지역의 복음전도를 역동적으로 사역하면서, 한 자매의 신실한 동역 속에서 드디어 지난 3일에 70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의 첫발을 내딛는 혼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벌써 2가정을 성도의 공회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는 혼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 땅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3. 일일 세미나, 여름 청소년 캠프장 준비



5월 5일에 저희는 일일세미나를 급하게 구성했습니다.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동료 선교사의 소개로 87세의 연세에 계속 현장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50%를 사역자로 양육하신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러시아 사역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갑작스런 초청에도 원근각처에서 40여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하였고, 저희 학교에선 점심은 '플롭'으로 저녁은 '샤슬릭(돼지고기와 닭고기)'과 다양한 샐러드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참석한 사역자들께서 성도들에게 교육이 아닌, 말씀을 먹어서 키워야 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편한 마음으로 풍성하고 맛난 음식을 처음으로 먹었고, 또 다른 세미나 일정 소식을 기대한다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루였습니다.



모든 이들을 돌려보낸 후에서야 고국이 어린이 날인 것을 기억하고 부랴부랴 고국의 손자들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은봄이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머물렀던 아들가족이 동탄에 거주하는 누나 가족들과 만나 손자들이 함께 어린이날을 보내는 사진을 보는 소박한 기쁨도 누리 봅니다.



탐보프교회는 7월 5일부터 17일까지 탐보프주의 '이나코프카' 시골에서 청소년 여름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저희도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에 200여명 수용을 위한 텐트 칠 장소와 식당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준비를 위해 지난 5/8일부터 5/11일까지 3일 동안 방문하여 캠프장소를 돌아보고 정지작업을 돕기도 하고, 교회 유기농 농

사를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 기도모임,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를 설교로 섬겼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동수 사역자 부부도 탐보프교회의 자립을 위한 유기농 농사에 조언과 지원을 하였고, 이동수 사역자의 아내 이유진 집사는 전문 음악인으로서, 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회중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도록 기여했습니다.



4. 총회연기와 컨퍼런스

지난 번 기도서신에서처럼, 4/17-4/19일까지는 현지교단인 '변화교단'의 임시총회와 컨퍼런스가 중부시베리아의 '이젠프스키'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정족수 미달로 다시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2틀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조선교사는 3명의 주 강사중의 한명으로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온 맘과 힘을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께서 부여하신 말씀들을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온전히 증거 할 수 있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실체에 대해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간증들을 전해 듣는 감사한 기간들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마친 후에, 타 지역에서 집회 초청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의 사역지경이 더 넓혀질 예정입니다.

5. SQ(영성지수)와 OS 전도교제 번역 및 감수

지금까지 OS 전도를 현지 교회에 적용하면서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현재 월 1회씩 일대일양육과 함께 OS전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SQ연구소에서 각 국에 전도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지금한국과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보강된 SQ와 OS전도 자료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6. 5월, 6월 일정

- 5월 26일은 그동안 기도해 왔던 토지임대료 조정을 위한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재판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 6월은 우선적으로 지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임시 공사는 저와 2명의 직원들이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6월은 전체적으로 지붕 강화 공사를 해야 함으로 지붕공사의 경험이 많은 건축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OS전도 및 일대일 양육학교를 6월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합니다. 각 도시에서 오는 사역자들이 러,우 상황속에서 어려움 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슬라브민족들에게 사명으로 부여지게 하소서
- ② 5월 26일 토지재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유리 변호사에게 탁월한 변호의 지혜의 말을 주셔서 판사의 공의로운 재판의 결과를 내리게 하소서
- ③ 6월 지붕공사가 건축전문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동원되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소서
- ④ OS전도와 일대일 양육과정을 통해 러시아 현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케 하소서
- ⑤ 예방접종을 시작한 은봄이가 모든 기본 예방 접종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 ⑥ 사위 '이유성'집사가 최근에 이직한 직장에서도 믿음의 아들로서의 본을 보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⑦ 두 자녀 가정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섬기게 하소서
- ⑧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항상 기도로 동행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모스크바에서 조동석, 곽수희 선교사드림 -